

같이 보기

: 제14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글 강성준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제주산업보건센터는 지난 11월 11일(금)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4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 유관기관 자격으로 처음 참가하였다. 본 행사에서 제주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은 근로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협회의 전문성과 고객만족도를 강조하며 진취적으로 소개하여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제14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은 2007년 제주가 처음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을 기념해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도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 행사로 이날은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선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선포식은 제주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올해 다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으며, 아시아 최초로 4차 공인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두 개의 큰 행사가 같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평소보다 배가 되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2021년에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어 제주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본 행사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화재안전, 자연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 산업보건안전 등 5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고, 68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제주산업보건센터는 그중 49번 부스를 부여받아 협회 소개와 도민,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통한 홍보 및 안전체험을 진행하였다.

제주산업보건센터 홍보부스는 전 연령대가 체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스 중 하나였다. 우선 저연령층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등 각종 장비들에 대한 체험 및 설명으로 흥미를 이끌어냈다. 미래의 근로자들에게 산업보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협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고연령층인 노동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혈압, 혈당,

스트레스, 혈관상태 등을 체크하고 상담을 진행해 높은 인기를 얻었다. 타 부스가 어린이와 학생 위주의 체험이 많아 아쉬움이 많았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건강 체크와 상담은 큰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협회 기념품과 소개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증정해 고객들에게 협회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홍보로 신뢰도를 끌어내며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산업보건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제14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했지만, 근로자, 도민,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제주도내에서 협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제주가 추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사고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가치와 ‘손상감시 시스템, 손상예방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참여를 산업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제주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